

북한개발소식

01

2020 January

통권 171호

| 이달의 주제 |

남과 북이 함께하는 북한선교와 통일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January

CONTENTS

이달의 주제 :

남과 북이 함께하는
북한선교와 통일



01

권두칼럼
새로운 한 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북한선교와 통일



07

칼럼 1· 하광민 목사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과
북한선교의 비전

13

칼럼 2· 김명남 목사
북한선교의 新생태계



22

칼럼 3· 강디모데 전도사
북한선교는
땅끝 선교를 위한 관문



28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



35

북한 뉴스

탈북민 목회자에게서 듣는
남북통합 영성집회

남북을 주님 안에서 품은 한 탈북민 목회자의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일시 : 2020. 2. 1 (토요일) 14:00 ~ 17:00 / 13:00 ~ 12월 2일
- * 장소 : 새마을 기도회 (북한 통일교회 1층 / 개성역에서 1km 남쪽, 10분 거리)
- * 참가 : 통일선교회, 통일교회, 한국교회, 불교, 신흥종교 등 누구나 (100명)
- * 신청 : 5만원선원회 100-036-014969 33층 3302호 (선원회)
- * 문의 : 김연옥 간사 010-6145-6657

39

북한 기도 제목



새로운 한 해, 남과 북이 함께하는 북한선교와 통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환기하는데 이러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와 계획은 일종의 결과물입니다. 그 바탕에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에 대한 가치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의미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비전을 점검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 몇 년 사이 남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개발소식의 독자라면 북한 선교와 통일과 관련된 비전을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선교와 통일의 비전을 품은 교

회와 성도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복음화에 대한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생각해볼 것은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가 속한 남한 교회만의 사명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해보이는 이 명제가 현장에서는 의외로 쉽게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에는 성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소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북한 복음화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직 남한의 교회만을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한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통일을 이루어가고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할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탈북민을 남한으로 보내주셨습니다. 3만 3천이 넘는 탈북민들이 지금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 40%가량이 기독교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 및 신학생들도 세자리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몇몇 교회들은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는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양육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교회 내에 북한선교부 또는 통일선교부서를 운영하여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민이 교회에 발붙이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내에서 탈북민은 낯선 이방인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탈북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겠지만 관심있는 교회들이라도 탈북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버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북한 출신 성도와 남한 출신 성도 간의 차이점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을 바라볼 때 책임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기 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섬김 받아야 하는 수혜자의 위치로만 바라보는 경향에서부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탈북민들을 남한 출신 성도들이 돕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탈북민 성도나 사역자가 남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는 무의식적인 편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는 서로를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러한 경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무례하고 비인격적으로 탈북민을 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르포 기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호의’가 탈북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경험들을 소개했습니다.¹ 북에서 굶었을 테니 많이 먹으라며 고기반찬을 몰아주거나 교회에서 무리한 간증 요청을 하는 사례, 탈북민 성도를 외계인 보듯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 등 탈북민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나 부담이 되는 행동들이 전혀 악의가 없는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어 오히려 하나됨을 방해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의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에 대한 구별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분명 남한 출신 성도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익숙하고, 대부분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맞는 사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이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 선교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한 몸

1 “[통일의 마중물, 탈북민 제대로 품고 있나] “北서 굶었을테니 더 드시라” 호의가 되레 상처로”, 국민일보, 2016.07.0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82124>>



된 교회를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남한과 북한 출신을 구분하여 보는 경향은 특히 탈북민 목회자나 사역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은 주로 북한 선교부서를 맡아 다른 탈북자를 돌보는 사역을 주로 하게 하면서, 남한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는 제한적으로만 참여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부서나 교구를 탈북민 목회자가 담당했을 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출신으로 인한 우려를 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 분위기는 탈북민 성도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 목회자들이 기존 교회에서 나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탈북민 성도들이 주로 모이는 탈북민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탈북민 교회의 귀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탈북민 교회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교회가 탈북민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로 받아드리고 한 몸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남과 북의 장벽은 단순히 탈북민 사역을 넘어서 북한 선교와 앞으로의 통일된 한국 교회를 이뤄가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통일을 생각할 때 가지는 혼란 오해 중 하나는 남과 북의 분단을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분단 상태의 종식을 통일의 실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통일은 통일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특히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리적인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

로 사람의 통일입니다. 한반도 전반에 복음이 편만하여지고 남과 북을 초월하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통일 비전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북한의 영혼들에 대한 집중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서 갈수만 있다면 바로 북으로 올라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속한 복음화를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동안 주체사상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그 허구성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길을 옮길 것이라는 기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북한을 품는 마음가짐은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복음 사역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 물리적으로 북으로 전도자들이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 상반된 체제에서 반세기 이상 분리되어 살아오면서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특히 오랜 기간 반 기독교적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큼니다. 지금 탈북민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잠음의 몇배나 되는 불협화음이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볼 때 북한 복음화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즉 올라가서 교회만 세운다고 북한 복음화가 기대와 같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간 한국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자주 빠졌던 함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성장에 미

혹되는 것입니다. 번듯한 교회 건물과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어떻게든 동원하는 기존의 사역 스타일은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 복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대로 허락하신 북한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겸손 가운데 끈기있게 이루어지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있어서 남한 교회 위주의 계획과 방법론은 지양해야 한다고 감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북한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합니다. 그 중 일부는 믿음이 드러나 산간 오지로 추방되거나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고, 아직 노출되지 않은 신자들은 비밀리에 일종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역의 주역은 바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지하교회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제한적으로 접한 복음과 성경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성도들을 제대로 된 신자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지적된 대로 북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 제대로 된 신학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충분한 성경 학습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운데 예배와 말씀 등 기본적인 신앙 활동도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 자체를 의심하는 태도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다 이러한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북방선교방송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신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북한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학 교육과 사역 리더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각종 신앙서적과 자료를 개발하여 가능한대로 전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고 일시켜 세우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약간의 지식적,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한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내고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박해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북한의 교회가 자생적으로 힘있게 일어나기 어렵게 되며 통일 한반도 교회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북한 선교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북한 내에 존재하는 성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 예로 현재도 각종 수용소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할 우리가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한 지금 북한 내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영적/육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남한의 교회가 이끄는 자가 아닌 돕는 자로서 서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기 위한 교회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각종 지식적 풍족함이 있는 남한 교회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북한의 교회를 돕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로 활용되어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겸손과 지혜가 바탕이 된 준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약간 더 가졌다는 이유로 자칫 북의 형제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전 중국과의 수교가 열릴 당시 조선족 교회에 무분별한 물질 지원으로 현지 교회들을 시험에 빠뜨렸던 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교회를 우열 없는 동등한 교회로서 존중하고 차별 없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 교회가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교회의 순수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은 남한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남한 교회가 축적한 신학적 바탕과 체계적인 목회와 선교 경험은 정치적 급변기를 거치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북한의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성을 띄거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상호 교류 가운데 자연스러운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한국 교회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최종점은 아닙니다. 통일 한국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야 할 것입니다. 남한 교회가 그동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경험을 축적한 것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교회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신앙은 어린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르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일깨워주고 새로운 선교의 동력을 힘있게 일으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유래 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열방을 섬기는 일꾼으로 한국 교회가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기도와 사역의 자리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데 격려가 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기대하는 북한 선교와 통일, 하나된 한반도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되고 더 크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꾀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나부터 시작하여 북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의 체질로 바뀌갑시다. 북한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금 이 땅에 함께하는 북한 출신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봅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꿈꿔봅시다. 2020년 한 해가 독자 여러분께 큰 도전과 전환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과 북한선교의 비전

하 광 민 목사 (생명나래교회, 기독교통일전략연구센터장)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2년 전 2018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평창동계 올림픽에 전격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바로 전해인 2017년 전쟁위기설을 타파하고 남북평화무드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한반도에 평화는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아련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선교는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한국교회의 숙명적 과제입니다. 북한선교에는 외부 변수와 내부 상수가 존재합니다. 외부 변수는 앞서 지적한 정치적 상황입니다. 남북정치적 상황은 항상 요동을 치는 변수입니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의존하는 선교방식은 외부 변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언제 어떻게 끊어지고 재개될 지 모르는 사역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북한선교사

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사역, 복음 방송 사역, 그리고 탈북민 사역입니다. 이 중에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북한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생명나래교회를 2014년에 개척하여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목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북한사역의 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냉철한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한 목회자로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경험들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써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남한 목회자가 북한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을 교회로까지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는 실향민 가족도 아니고 부모님은 남한 출생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 때 하나님께서 그저 북한선교를 하라는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26년째 그 길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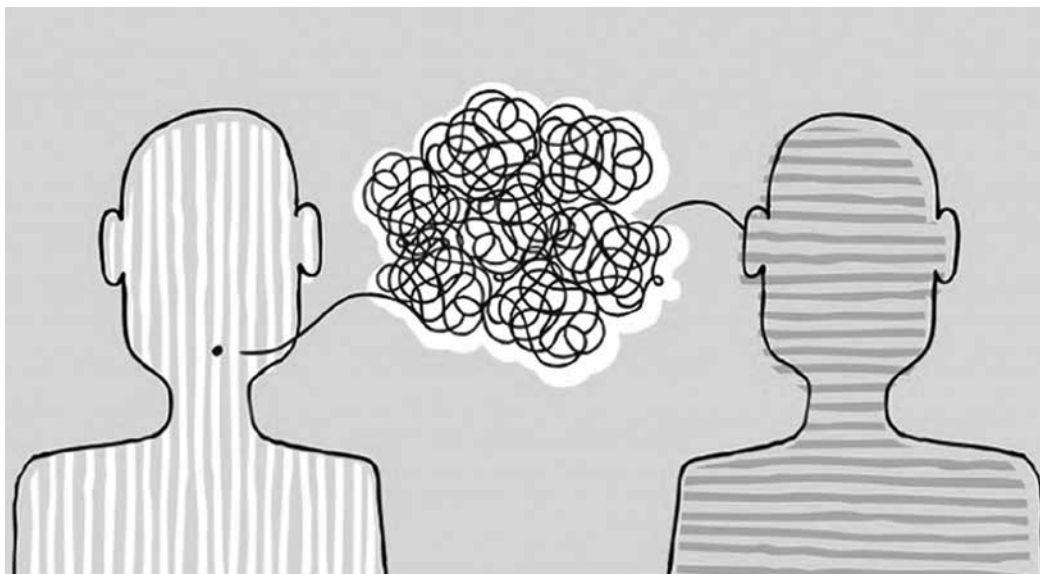
사실 94년 북한선교 소명을 받기전까지 북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했고 언젠가는 만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근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처음으로 북한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배우다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의 생명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사역하고자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언젠가는 미국시민권을 얻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만 공부만 마친 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

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2008년에는 이미 탈북민들이 한국에 16,000명이나 들어와 있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기간을 거치면서 통일 이후에 북한에 세워질 복음적교회를 꿈꾸게 되었고 2014년에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생명나래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26년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험하고 최전선에서 섬기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교훈, 그리고 한계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6년간 겪었던 시행착오 내지는 오해들은 무엇이었는데를 소개하고, 거기에서 느낀 교훈점들과 솔직한 한계들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시행착오 내지는 오해는 바로 목회자 자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많이 알고 경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부친의 개척



교회를 도왔었고, 다양한 교회에서 부교역자생활을 했으며 교수사역, 선교단체와 통일 NGO 사역, 그리고 한국과 해외 규모의 통일 기도회 조직, 이민교회 경험 등으로 인해 나만큼 교회를 잘 알고 준비된 사람도 드물 것이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교회는 전혀 새로운 목회환경이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번번히 실수와 연약함이 노정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모두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제자훈련목회, 기도목회, 교육목회, 선교목회 등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들이 있고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매뉴얼과 목회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명 통일목회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 인프라가 너무 약합니다.

두 번째 시행착오는 남과 북의 성도들의 다른 문화였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이 생명나래교회로 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남한 분들은 북한에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북한분들과 함께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오래 가지 못하고 일정 기간 다니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냥 예배가 좋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경우에는 북한선교와 탈북민 자체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북한 성도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면 약간의 부딪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성향을 나타낸다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소득수준에 맞게 소비하지만 탈북민의 경우 그것이 부

담이 될 때라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탈북민의 경우에는 지인의 소개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세계관이 매우 협소합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에게 관대하고 이들 역시 교회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앙적 이유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교회는 남한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남한사회를 더 이해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문화 같은 경우에 남한식 음식보다는 북한식 음식이나 맛을 선호하여 함께 교회에서 음식할 때 메뉴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는 남과 북의 성도들의 생활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다른 생활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공동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교회 내에서도 생활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의 성도들의 생활 차이도 처음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민 가정에서 자녀가 자라면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비교당하면서 오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같은 교회에서 대부분 남한 부모들은 충분한 지원을 해줄 수 있

는 반면에 탈북민 가정에서는 지원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탈북민 부모들이 갖는 정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이기에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탈북민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문제, 아이들 교육과 진로 문제 등 공동체가 책임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탈북민들이 남한의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가치와 교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와 오해들은 남과 북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만일 남과 북의 분단이 계속 지속되고 차이점만을 강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오는 일시적, 또는 과정적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년 간의 남과 북의 성도들이 모여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일한반도문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설교, 찬양, 훈련, 교제 등 모든 영역에서 남한식이 아니고, 북한식이 아닌 남북융합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융합의 기준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가장 베이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훈련에 있어서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쓰는 여러 제자훈련교재가 써봤지만 북한 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남한 분들 경우에는 이미 식당한 교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래교회 신앙훈련은 성경책으로만 진행합니다. 1년 반 과정으로 개설되는 성경제자사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니 남과 북의 성도 구분 없이 다들 좋아합니다. 성경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배도 좀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식으로 하지 않고 뜨거운 찬양, 말씀, 기도와 삶의 나눔으로 꾸밈니다. 설교는 성경을 첫 권부터 강해합니다. 교회 개척 처음부터 창세기를 강해해서 지금 사무엘상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알려주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쉬운 언어와 예화를 곁들여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항상 설교는 어려운 일입니다.

음식 문화가 가장 바뀌지 않는 영역인데 남과 북이 함께 하다 보니 새로운 음식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교회김장을 할 때 남한식으로 할 것인지 북한식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 해 김치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북한식으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남한식으로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로는 북한식 김장을 담겼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북한김치를 맛보았기 때문에 북한식 김치를 찾는 이

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남북의 입맛이 서로 넓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이 만나면 매번 서로 배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북한 표현은 무엇인지,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서로 삶의 나눔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 할머니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목사님, 영 재미있습니다” 그러자 남한 권사님이 “한국에서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면 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매우 긍정적일 때 쓰는 표현인가봐요”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일을 넘어 통합의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니까 그것이 융

합이 되면서 강한 선교성(missional)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디옥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되었을 때 후에 바울을 세계선교를 위해 파송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나래교회는 북한선교를 넘어서 다양한 세계 선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4개국으로, 다섯 번의 단기선교를 남과 북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복음으로 융합되어질 때 이것은 향후 강력한 선교한반도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교회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남한 성도들의 교회로 들어오는 심리적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탈북민들



〈안디옥 교회 유적. 선교하는 교회의 성경적 모범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 북한 선교와 통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존재하고, 통일과 북한선교가 교회의 주요 화두이어서 남한성도들이 여간해서는 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북한 성도들을 공홍의 차원에서 관리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북한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했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지점까지 이르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탈북민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남한 성도들보다 교회를 알게 되고 신앙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정착과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성도들은 교회의 중요한 성도들이기에 그들이 더 빨리 자라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평생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저도, 남한 성도들도 평생 지어져가는 존재(엡 2:22)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6년간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남과 북의 교회를 개척목회하면서 느낀 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원래 부탁받은 큰 제목은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통일선교였는데 쓰다보니 제 개인적 통일목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지

금 남북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수적인 일은 남한에 내려 온 탈북민들과 신앙을 매개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의미있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 같이 가야 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부끄럽지만 실수들과 그것에 바탕한 경험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선교의 新생태계

김명남 목사 (서울반석교회)

1. 문제 제기

초창기 북한선교의 생태계는 1970년대 몇 명의 목사님들의 기도운동과 대북 방송 선교,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의 문서 선교를 중심으로 중국 및 러시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이 생태계는 간헐적으로 “고난주간 북한돕기운동”, “6.25기념 북한돕기운동”, 연말연시 “북한돕기운동”을 통하여 명분이 유지 되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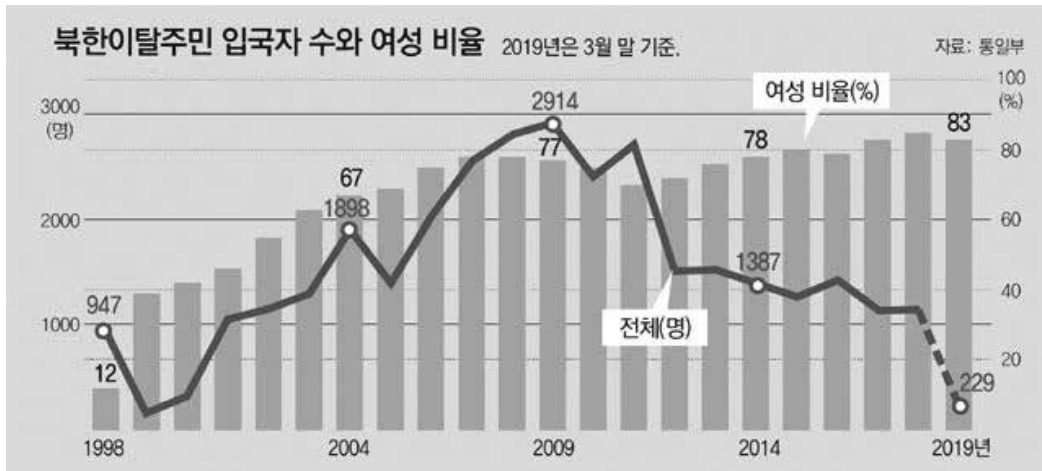
그러다가 199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탈북민으로 통칭) 대거 등장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는 “그들이 왜 탈북하였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탈북민들의 다양한 증언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증언을 근거로 북한에 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얻어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선교로드맵’을 그리면서 또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선 한국교회 내에 교파를 초월하여 통일과 북한선교 전문가 그룹들을 통하여 북한선교와 정

책 세미나, 홍보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의 당위성을 일깨웠다. 한국교회는 국가 및 교단 차원에서 북한의 공인된 채널을 북한선교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교회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 구제와 북한 지하교회 선교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은 미국과 국제 우방들과 언론 방송과 인권단체를 통해 북한 정권의 폭압과 인권 실상과 각종 죄악상을 공개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왔다. 또한 월경자들을 통한 라디오, 미디어, 문서 사역으로 북한 복음화에 힘을 쏟게 된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대거 입국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며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어떻게 그들을 북한선교의 일꾼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한식의 전도와 양육 방법으로 교회에 정착시키고 선교의 일꾼으로 양성하려 하였으나,² 여러 문화적, 관습적, 윤리적, 언어적 차

1 김중석, 「북한교회 재건론」(서울: 진리와 자유, 1998.), 56.

2 탈북민은 동일한 민족과 언어와 전통을 가졌으므로 남북한 간 문화 교류, 내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에 관한 예측지를 제공하는 역할로 인지해왔다. 그러므



〈199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연도별 탈북민 입국자 수와 여성 비율. 최근에도 매년 1천여명 이상의 탈북자가 입국하고 있다〉

이³, 그리고 당사자의 교회 출석 동기 부여 결
여⁴, 등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혼란이 야
기되었고, 현장에서 사역하던 많은 이들이 실
망하고 손을 떼는 일들로 북한선교는 집중도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선교 현장에서 발

로 북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이자 동시에 새로운
체제와 문화권에 진입한 주체들을 통하여 통일 선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탈북민들은 남과 북이 한 민족임을 강하게 교육받았기에 같
은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남한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
내온 삶의 환경 때문에 다중적,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 존재임
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남한 주민들이 가지는 문화적, 언
어적, 관습적으로 동질성을 가졌지만, 분단의 현실과 체제 이
념의 영향으로 이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북한과 중
국, 그리고 제 3국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의 가지는 생존적 본능을 따라 살도록 그들의 가치관
을 개인주의와 배금주의화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외부의 환
경에 의하여 비자발적 탈북이 이루어졌고 살기 위하여 남한
으로 공간적인 이주를 당하였으므로 사회적 소수 및 경제적
약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남한 사람과 다르다. 그
러므로 그들에게 보편적인 윤리를 찾는다면 요구하는 것은
지금으로써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4 탈북민 중에는 한국사회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교회를 어떤
물질적 도움을 받는 도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게 교회는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회가 그들의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과감히 떠나 버린다. 만약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이단이라 하더라도 찾아 간다.

생하는 혼란은 비단 한쪽의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양자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고, 한국
교회는 이 혼란을 문화의 차이로 받아들여 다
른 선교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후 한국교
회는 북한 선교부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일꾼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스템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교회 정착을 도우려 하였다. 그
동안의 실패와 아픔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서
만들어진 결과임을 인식하고 한국교회는 전문
지식과 헌신 된 자원(일꾼)들을 재정비하여 서
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가며, 탈북민들이 ‘북
한선교의 마중물’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으로 키우는 것에 힘을 쏟았고, 이것이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다.

일부 남한 출신의 목회자들은 직접 탈북민
들을 위한 교회 개척함으로 북한 선교의 한

5 「북한선교의 마중물, 탈북자」, 두날개 출판사, 조요셉.

생태계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남한 목회자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역시, 여전히 ‘문화적 차이’라는 벽을 넘어서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감소와 복음화 저하, 혹은 탈북민의 ‘탈(脫)교회화’, ‘가나안 교인’ 현상으로 탈북민을 위한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나마 “튼튼한 조직력과 자원, 그리고 경제력, 영적 리더십”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교회 안에 북한 선교부의 경우 꾸준히 탈북민 목양 사역이 유지되고 있으나, 남한 목회자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운 개척 교회의 경우 존립 자체가 위기에 놓은 곳들이 많다.⁶

한국교회는 산후통을 겪는 동안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의 증가와 현장의 필요성에 의하여 또 다른 북한선교의 생태계가 이루어졌다. 현재 탈북민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김모 목사는 개척 이후 “탈북민이 탈북민 목회, 북한 사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탈북민 목회자인 나도 그러하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들이 탈북 출신 목회자를 찾는 이유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른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도 함께 겪었고, 중국과 제3국에

서의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지를 알고 있어서, 자신들을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고 온다. 이런 사실적인 공감 때문에 남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같은 탈북민 출신의 목회자가 설교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다. 저들의 주일은 단순히 주일성수의 개념을 넘어서 삶을 나누고 위로를 받는 날이다.”라고 말한다.⁷ 이것은 한 개인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탈북민 목회자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교회들 역시 자립적인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회의 자량이라고 할 만한, 어쩌면 한국교회가 제도적 교회로서의 현상을 유지해주는 전통과 믿음의 유산들이 부재하고, 훈련되고, 헌신된 일꾼들이 부재하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목회자 혼자서 양육과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정착하는 일에 탈북민들의 경우 크고 작은 경제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충당할 자생적 능력이 아직은 개척교회들에는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 문제는 탈북민 목회자 스스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생적으로 살아남기란 어려울 것이다.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한국교회에서 정착을 시도하고, 신앙의 정착에 성공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 서로의 신뢰가 쌓여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리드를 잘해준

6 탈북민을 위한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의 유지를 위하여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는 남한 성도와 사역의 목적인 탈북민들의 비율이 평행선을 이루어야 하나, 지역적, 환경적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그 비율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7 김성근, 『개척교회와 탈북민 목회자의 역할』 탈북민 목회자 포럼 발제 내용 참조.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내 가운데 각종 장애물과 선입견, 타성을 이겨내며 꺾대를 향하는 경주자의 자세는 북한 선교에 있어 꼭 필요한 덕목이다.〉

안내자가 있었을 때, 혹은 스스로 정착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자신이 선택하여 출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대부분은 탈북민인 것을 숨긴 채, 혹은 알려지길 원치 아니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탈북민임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탈북민이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수년간의 북한선교에 관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의 열매는 기대 이하이다. 점점 북한선교는 그 동력을 잃어가고 정체기에 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남북한에 어떤 문제와 도전이 올 때마다, 혹은 탈북민을 통한 어떤 위기와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북한선교를 더욱 위축되게 한다.

2. 북한선교의 신(新) 생태계로서의 대안은 무엇인가?

1) 우리 안에 잠재된 타성(Mannerism)을 깨야 한다.

지금까지 해볼 것은 다 해봤다는 식으로 접근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 여전히 북한선교 및 탈북민 선교의 당위성은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유효하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선교’라고 말한다. 북한선교의 기초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은 세계 전체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밝힌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라 여

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시 24:1~2)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시 33:13)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타민족도 하나님의 관심을 끝없이 받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롬 3:29)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⁸ 온 인류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육하고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다만 유대인의 신이라면, 선교란 아무 의미가 없다.⁹

에드워즈는 「원죄론」에서 “누구나 다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상 영적으로 동등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연합하는 자들은 인종, 민족, 신분 고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으며¹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엡 2:13).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

라”(마 28장 28~30)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북한선교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현재 겪고 있는 혼란을 극복하여 북한선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2) 북한선교의 신(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① ‘리포터’(Reporter)가 아닌 ‘디자이너’(Designer)로 만들라

지금까지 북한선교는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즉 몇 명의 전문가, 혹은 특정인의 역량에 따라 북한선교의 방법과 틀이 만들어져 왔다. 탈북민들의 탈북과 한국으로의 유입하는 과정에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정작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보지 아니한 길이었기에 그들의 정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러 세미나와 간증, 북한선교학 교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북한선교 방식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이 북한선교의 하나의 공식이 되어 버렸다. 물론 이 ‘공식’은 빠른 추진력과 안정성을 제공하였지만, 그 공식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창의력의 부재로 늘 혼란스러움을 겪어야만 했다.

한국교회는 북한선교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안의 존재하는 심리는 탈북민을 이방인으로 분리하고, 가까이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북한선교부’가 자생적으로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 관련 세미나와 관련 연

8 김명남, 『성경에 근거한 바른 북한선교관에 대하여』(석사학위 논문, 2012.) 47~48.

9 Ibid., 49.

10 이진락, 『한국교회 통일 교육-What&How』(서울: 교회선교연구소 제 50호 2011.). 196.

구 토론회, 북한선교학교를 통하여 북한선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여전히 관심이 있는 ‘예비북한선교’의 일꾼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본 발제자에게 앞으로 북한선교의 방향에 대하여 종종 물어본다. 그들에게 저자는 “북한선교의 현장에 뛰어들어라. 부딪치다 보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이제 북한선교는 수직적인 방식(하나의 공식)이 아닌, 수평적인 방식(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북한선교의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좋은 자원들을 리포터로 만들지 말고 디자이너가 되도록 장을 넓혀주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더 많은 피드백이 자유롭게 일어나 그 피드백으로 다양한 선교적 대안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선교에 대한 당위성과 사명을 가졌다면, “정보 의존적 선교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북한선교의 새로운 디자이너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조언해본다.

②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신(新)생태계(Now Ecosystem)를 만들라.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러 생태계를 통하여 ‘북한선교’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각 교회, 전문 기관, 내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더 나은 북한선교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㉞ 사람을 통한 협력을 이루어내라.

목회의 현장에서의 리더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고 강조되어야만 한다. 탈북민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한 경우, 목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 시행 착오를 겪고 있다. 한국교회는 더 나은 북한 선교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믿음의 유산들을 충분히 배우고 훈련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탈북민 사역, 혹은 탈북민 사역자와 협력은 “리스크(Risk)를 안고 가야 하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탈북민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영적 리더로 세워질 때, “한국교회 내에 성도들이 안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목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탈북민 목회자도 어디까지나 탈북민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영적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한국교회가 탈북민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또 목회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리스크(Risk)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버거운 존재’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더 나은 생태계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탈북민 혹은 탈북민 사역자를 “Risk”에서 Synergizer(시너지)를 만드는 사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저자¹¹의 사역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저

11 본 발제자는 광명시에 위치한 서울반석교회(김용석담임목사)에서 사역하고 있다. 현재 사역하는 교회의 평균 출석규모는 장년 1000명, 교육부서 6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이다. 본 발제자는 서울반석교회에서 교구사역(413가정)과 살롬부(65세 이상 100명), 그리고 선교부, 성경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다.

자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에 처음 이력서를 제출하였을 때, 당회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연 탈북민이 일반 교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리스크(Risk)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김용석 담임목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서울반석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라면 당연히 함께 동역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탄은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여 한국교회의 사역을 위축시키려고 늘 발악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협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결심하고 청빙을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한다. 이어 “향후 한국교회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마 9:17)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일한국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모델이 탈북민 목회자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탈북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지는 시너지(synergy)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¹²라고 말하였다.

함께 사역하는 서울반석교회 목회자와 중진들의 이야기도 탈북민 사역자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탈북민 목회자와 동역하는 것에 대해 ‘부딪치지 않을까?’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사역할수록 탈북민 사역자가 겪었던 고난과 연단 속에 만난 하나님이 남한의 성도들에게도 감동이 되며, 북한 출신 교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 교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또 북한 출신 사역자들이 교회에 있으므로 성도들도 통일 이후의 교회 모습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한다. 저자가 감당해온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본 저자가 청빙을 위하여 면접을 볼 때, 그 자리에 있던 한 당회원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목사님을 선택한 것은 ‘secondly’ 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Best’ 였다”라고 말한다.

저자 본인은 이러한 칭찬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교회가 북한 출신 사역자에 대한 걱정과 편견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좀 더 적극적 자세로 탈북민 리더 양성과 남과 북이 하나된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길 바라며 저자 개인의 사례를 소개해본다.

㉔ 탈북민교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라

현재 한국교회의 북한 사역은 산발적(散發的)이다. 한국교회들은 분산적인 사역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집중적 사역으로 신(新)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컴패션에서 운영하는 ‘북한어

12 위의 내용들은 본 발제를 위해서 서울 반석교회 담임목사님과 인터뷰한 내용들이다.



〈북한교회세우기연합 주최로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탈북자를 품읍시다’ 행사에서 행사에 참석한 남한 목회자들이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린이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본 발제자가 섬기는 ‘서울반석교회’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캠페션과 협력하여 미래의 북한선교를 꿈꾸고 있다. 교회는 그 본질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역의 지경을 넓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여 본 교회는 북한선교를 전담하고 있는 캠페션과 연합하여 그들의 의견과 사역 방향에 귀를 기울이며 북한선교에 동참하고 있다.¹³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협력 사역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탈북민 목회자들이나 남한 목회자들이 만들고 싶은 북한선교의 생태계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생태계’가 아니다. 모든 북한선교 사역자들이 만들고 싶어서 하는 교회는 “탈북민”이라는 꼬리표


를 떼, 경계가 없는 ‘일반적인 교회’이며, ‘열린 교회’를 꿈꾼다.¹⁴ 하지만 현재 생태계로 “고립된 생태계”이다. 그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벗어나거나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 생태계를 무너뜨리듯이, 개 교회의 이기주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탈북민교회와 협력하여 탈북민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는 재정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협력 사역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북한 선교를 시작한 이래 제대로 자립한 교회가 몇 있는가? 여전히 재정적, 인적 자원들을 북한 선교와 탈북민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만,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의 현장에는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고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개인적으로 사역의 집중이 되지 못하고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사역은 분산되어 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많고, 재정과 인적 자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 사역이 분산되고 효과가 떨어진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

13 서울반석교회 북한선교부 홈페이지, <https://www.ban-suk.kr/ministry/intro/34>

14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다.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안디옥교회는 모든 장벽을 넘어섰다.

럴 필요가 있을까? 특정의 교회는 탈북민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탈북민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듯이, 탈북민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역이고, 지금의 과도기에 더더욱 필요한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구축한 교회의 집중적인 협력으로 더 든든하게, 바르게 세워진 교회, 열린 교회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와 탈북민 교회가 서로에게 “시너지(synergy)”를 주어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교회생태계를 또 만들어내길 소망해본다.

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북한선교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나가는 말

“왜 북한선교 왜 동력을 잃고 있는가?” 한국교회 안의 편견과 타성(Mannerism) 때문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한국에서 생활이 15년을 넘겼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목회 전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문화, 생활습관, 언어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한다. 그것은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시너지(synergy)’가 되고, 교회를 교회다워지게 하는 거룩한 진보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탈북민 성도가, 남한 성도가 스스로 경계를 만드는 일이 없는,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 즉, 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북한선교의 당위성과 한계, 그리고 위기를 인지한다면, 한국교회는 편견을 깨고 스스로 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제는 인

북한선교는 땀끝 선교를 위한 관문

강디모데 전도사 (한소망교회)

1. 문제제기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70년 넘게 살아왔다. 한 민족임에도 다문화¹로 분류 될 만큼 남한과 북한은 체제차이로 인한 교육으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현실로 남과 북은 서로를 동족, 가족, 또는 친구로 이해하고 화해와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반공교육, 안보교육을 통해 서로를 적대시하며 사탄의 집단으로 간주하면서 죽여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다.²

또한 여야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북한의 프레임들이 설정된다. 진보는 평화를, 보수는 인권을 앞세운다. 진보정치는 북한을 돕고 평화의 단계로 발전시키려고 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보수정치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북한을 돕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북한을 돕자고 하면 진보가 되고 북한인권을 이

야기하면 보수가 된다. 교회마저도 선교적 관점이 아닌, 정치 프레임 안에서 눈치계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념적 프레임이 아닌 복음의 프레임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 중심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이해하고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8조를 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³라고 명시 되어 있지만 김 부자를 위한 신앙의 자유일 뿐, 기독교의 탄압과 박해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북한은 ‘트루먼 쇼’와 같고 ‘극장국가’⁴와도 같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유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독재정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의 억압 아래서 고통당하는 북한주민들이 있다.

1 임용석, 『통일, 준비되었습니까?』, 진리와 자유, 42.

2 조은식, 『선교와 통일』, SSU Press, 202-203.

3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4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창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한국교회에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향해 어떻게 이해하고 선교할 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

2.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이해

북한선교를 위해서 먼저 북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사상이론·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통해 김일성을 우상화했다. 따라서 김일성(북한의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형성하여 전 사회를 수령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했다. 김일성, 김정일 사망한 이후에도 곳곳에 영생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을 세웠고 금수산태양궁전에 미이라 보존 및 법까지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수령론을 내세워 독재정치의 정당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하나님이 된 김일성 수령에 대한 교시에 기준하여 김정일, 김정은은 유훈통치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 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가지 정도의 프레임으로 이해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부와 주민, 평양과 지방,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북한 내에 있는 북한주민과 북한 외에 있는 탈북민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정부와 주민이다. 북한은 북한

정권 하의 북한주민이 존재하지만 북한정권이 북한주민을 대표할 수 없고 북한주민이 북한정권을 대표할 수 없다. 이유는 북한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착취하고 있고 주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김씨일가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은 독재정부를 위한 주민이 아니다. 비정상국가인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정부와 주민을 대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제3국에 있는 탈북민 등, 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독재의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법이 제정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평양과 지방이다. 수령중심의 핵심계층⁵을 평양중심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출신성분이 안 좋은 기본계층, 복잡계층은 지방으로 흩어져 거주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마저도 정부가 수령중심으로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지역갈등은 대한민국만큼 심각하고 탈북 후 한국에서도 평양에서 산 경력이 있으면 우월주의를 갖게 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수령중심의 도시 평양은 지방과 차별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지방은 배급을 공급

5 북한은 수령 중심으로 계층을 기본적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이다.



〈2015년 1월 30일 밤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촬영한 사진. 북한은 평양과 타 지역 간의 밝기 차이가 극심하다.〉

하지 않아도 평양은 식량을 지원하고 복지혜택을 늘려 고난의 행군(1995-1997)기간에도 지방보다 아사자가 적었다. 또한 도시건설도 평양 중심으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극장쇼를 벌이고 있다. 어쩌면 평양은 수령을 위한 트루먼쇼와 같은 거대한 극장일지도 모른다.

셋째, 북한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양중심의 기득권층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수령중심의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수령중심의 체제로부터 이탈할 경우는 제일 먼저 탈남을 시도하겠지만 대부분의 기득권층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한 작업에 간신이 되어 있다.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은 김씨 일가이다. 그들의 명분은 수령의 교시를 근거로 하고 있고 ‘체제유지’를 위한 우상화 작업과 일관된 대내외적 외교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며..., 우리의 핵무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⁶라고 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결국 개방 없는 개혁을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통해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외부의 정보유입 차단과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 할 것이고 위반하였을 시 정치범수용소 구금, 공개처형과 같은 공포정치를 일삼을 것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⁷는 북한의 구호처럼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것을 보고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 외교적 변화들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대북체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일 뿐, 완전한 비핵화, 평화를 위한 단계로 나아가기에는 좀처럼 시간이 걸리는 듯 하다. 그러나 10년, 20년 전과 오늘날의 북한을 비교하면 아주 더디지만 변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6 조선중앙통신. 2013.3.30.

7 2010.4.14.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 준공식에 보낸 김정일 ‘친필명제’의 한 대목이다.

8 연합뉴스, 〈김정일 “자기 땅에 발 붙이고 세계를 보라”〉, 2010.4.14, 20:53.

다. 더딘 변화에 큰 희망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북한의 선교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선부른 판단과 행동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교회가 좋은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2천만의 북한 주민들은 수령·당·대중 중심으로 사회주의 집단국가에 귀속되어 민주적 자유를 억압당한 채, 김씨 일가 중심으로 아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유는 서로 다른 개인의 생각이 존중받을 수 없는 사회이고 수령을 위한 집단을 위해 한 개인이 희생해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보다는 거짓과 위선으로 ‘간신’이 되어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트루먼쇼, 극장국가와 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생계형 탈북, 정치적 탈북, 이민형 탈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북한의 억압과 공포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집단에서는 ‘배신자’로 규정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의 마중물’과도 같다. 북음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불의한 북한의 독재정권과 맞서 북한주민의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고 남과 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북음의 전문성을 가지는 통일시대의 일꾼으로 준비

시켜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고 땅 끝까지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로 양성해야 한다.

북한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3만 3천여명⁹의 탈북민들과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북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북민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고난 가운데 불러낸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탈북민들과 탈북민교회의 협력을 통해 땅끝 선교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3. 북한선교는 땅끝 선교를 위한 관문

북한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북한선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지상명령¹⁰이기 때문이다. 1885년 한국에 온 첫 공식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시작된 한국교회의 역사는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와 아울러 세계에 2만 7천여 명¹¹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 각 교단, 각 교회, 선교단체들마다

9 통일부. 국내 탈북민 인구 33022명. (2019.6월 말 입국자 기준)

1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11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8년도 선교사 파송 집계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는 북한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북한선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의 고난의 행군¹²기간을 통해 약 수십만명에 달하는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하였다. 이때 선교사들은 중국교회와 협력하여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출하여 북한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북한주민들은 다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중국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중국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목회자, 또는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쫓아 순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선교를 위해서 탈북민 사역자들과 한국교회는 동역의 관계로서 북한선교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를 향해 함께 해야 할 동역자들이다. 선교의 침체기에 들어섰다¹³고 진단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3만 3천 여명의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탈북민들과 탈북민교회들과 협력하여 선교의 불길을 살려야 한다. 흘러 보낼 때 살게 되는 복음의 비밀을 통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¹⁴을 남겨 두셨듯이 북한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지하교회 신앙인들이 있다. 하나님은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여실 것이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함께 실크로드를 지나, 무슬림 지역을 지나 땅끝 선교를 감당 할 것이다.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죽음을 각오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반도가 다시 깨어나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1994.8.7. 김일성 사망 이후 1995-1997년 300만명의 아사자들이 속출한 시기

13 뉴스파워. “한국 선교운동, 침체기에 들어섰다”, 2016.4.15. 18:47.

14 로마서 11:2-4.


결론

모든 선교가 영적 전쟁이듯 북한선교도 마찬가지이다. 유물론과 유신론, 주체사상을 통한 수령론을 내세워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북한, 그 뒷배경에는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 동반된다. 따라서 북한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북한 독재정권 압제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 숨죽이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교회, 예수 믿는 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북한주민들, 북한 감옥에 갇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고 계시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듯이 북한의 억압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역을 이루어 갈지도 모르겠다. 또한 제3국에 머물러 있는 15만 이상의 북한동포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들,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셨듯, 한민족 디아스포라인들의 빛들을 통해 마지막 선교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북한선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북한선교는 천개이상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렵다. 사전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 각자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역을 이해하기 어렵고 협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공개와 비공개, 단기적 사역과 장기적 사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몸을 담고 사역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을 그릇되게 하기 십상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도 한 몫을 한다. 통일대박론의 대세를 따를 때면 북한선교에도 그럴듯하게 가시적인 무언가가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마저도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대세가 기울면 함께 기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선교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용 대상자들을 먼저 선정하고 그 대상들을 위한 기도와 접촉점들을 통해 단계적 접근 방법과, 단·장기간의 선교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북한선교 사역에 가능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도 고속도로, KTX 고속열차, 하이퍼루프 시대가 열릴 것이고 북한을 몇 분, 몇 시간이면 출퇴근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북한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열방까지의 선교를 감당할 날이 멀지 않다. 이미 북한선교의 문은 열려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 넓게 열어 주실 것이다. 북한선교를 위해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과 협력, 교회와 협력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10)

마리아

교화소에서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검을 하고 세면을 했다. 아침 식사를 먹고 밖에 일하러 나갔다. 햇볕이 찜찜 내리쬐는 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일했다. 아마 남한이었으면 그런 타는 듯한 날에는 쉬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짝소리 못하는 죄인이었다.

죄수들이 이동할 때는 정규부대처럼 정확하게 대열을 맞추어야 했다. 팔도 다같이 각도를 맞추어서 흔들었다. 그 때는 내가 그나마 젊은 축에 속해서 왠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0대부터 70대 여자들은 일을 할 때 너무 고되보였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불쌍하고 슬픈 마음

이 들었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그나마 수월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별 게 참 다행이고 감사했다.

겨우내 언 똥은 무더기로 쌓아놓았다가 봄에 밭일을 할 때 사용하였다. 밭에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땅에 고랑을 내었다. 남쪽에서는 기계로 똑딱똑딱 해결할 일을 여기서는 인력으로 해내었다. 봄에는 녹은 똥을 손으로 집어서 우묵 파인 고랑에 놓아야 했다. 차마 맨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감사하게도 예전에 집결소에서 반장할 때부터 알았던 분을 여기서 만나서 장갑을 얻었다. 남편이 면회 때 준 장

갑도 쓸쓸하게 활용되었다. 옆에 별을 단 군인과 검사하는 간수들의 통제 속에 밖에서라면 차마 하지 못할 소스라치게 더러운 일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점심을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필수였다. 교화소가 산악 지대에 있었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산물은 차갑고도 맑았다. 모두



정렬하고 있다가 “들어가!”라는 한 마디에 일제히 넷가로 뛰어가서 씻었다. 불과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모여!”라는 소리가 들리면 또 다시 일제히 뛰어가서 정렬하였다. 밭일을 할 때는 땅을 계속 파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먼지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씻을 시간을 그렇게 안 줬다.

하루는 생리를 하였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잘 씻지 못하는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청결을 관리하기란 불가능했으나 옆친 데 덮친 격이었다. 일회용 생리대는 당연히 꿈도 꿀 수 없고 가재천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나 또한 매달 돌아오는 주기마다 가재천으로 해결했다. 가재천을 세탁하여 침실에서 말리는 것까지는 허용되었으나 막상 씻는 것이 문제였다. 매일 일과 전후에 밭 옆에 넷가에서 씻도록 허용되었으나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손발은 고사하고 가재천을 물에 담갔다가 짜내는 순간 시간이 끝났다. 어느 날은 넷가에서 씻으면서 비닐봉지에 가재천을 찹싸게 집어넣고 본 대열로 합류하는 척을 하면서 동시에 빠져나왔다. 사실 대열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때는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천을 마저 빨고 조심스레 감방 건물로 들어왔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감방이 죽 나열되어 있다. 이상하리만치 다행스럽게도 다른 방 문은 다 잠겨있었는데 우리 감방 문만 열려있었다.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는데 복도에서 감방장에게 걸렸다. 감방장은 간수가 아니라 죄수 중에 따로 뽑힌 인원이다. 내가 사정사정하면서 ‘생리기저귀를 빨고 왔는데 금방 사용할 게 없어서 들어왔다. 제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니 처벌하

지 않고 넘어가주었다. 얼른 방에 들어가서 뒤처리를 하고 뛰어나왔다.

청결 문제와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도 항상 관건이었다. 항상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에 뱃가죽이 등에 붙은 기분을 달고 살았다. 봄에 감자를 심으려고 고랑을 파내다보면 작년에 미처 수확하지 못한 작은 감자알들이 간혹 있었다. 몇 개월 새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그 빛깔이 감자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해진 상태였지만 그것마저 우리에게겐 보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대여섯 알을 횡재했다고 좋아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노다지 땀다고 부러워했다.

우리는 커다란 가방으로 겨울에 언 똥을 운반하곤 했다. 우리는 가방이 비어있을 때에는 그 속에 횡재한 감자를 넣어다녔다. 그 큰 가방 말고도 개인적으로 장갑과 같은 필요 물품을 넣고 다니는 작은 천 가방이 있었는데, 그 주머니도 참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새싹이나 쏙도 자취를 감춘 봄에는 상대적으로 몸 검신이 간소화되었는데, 그 때 우리는 그 노다지 감자알을 가방에 숨겨서 감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곤 했다.

우리 감방 뒤쪽 창문으로 연결된 다른 방은 공구관리공들의 창고였다. 공구를 수리해야하므로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조장에게 보고하면 조장이 반장에게 보고하여 시간을 보고 창고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천 주머니에 감자를 모아 넣고 이리저리 뭉개서 가지고 있다가 관리공이 창고에 가 있을동안 감자 주머니를 찹싸게 창문 밖으로 던져주면서 익혀달라고 했다. 그러면 공구관리공들이 뜨거운 물에 감자를 익혀주었다. 껍데기도 벗기지 않은 생 감자에 땅에서 오래 묵은 녀석이다 보니 색깔이 예쁘지도 않고 감

자보다 흙과 돌이 더 많이 씹혔지만 감자떡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 너무 배고파서 그 감자떡 맛이 꿀맛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되면 교화소 근처에 머루가 참 많이도 피었다. 머루와 다래 잎사귀를 보아두었다가 대열을 정비할 때 잽싸게 따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독풀만 아니면 무엇이든 먹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식사할 때 밥을 한 숟갈씩 그 머루 잎사귀에 싸 먹었다. 원래 머루 잎사귀는 식품이나 야채가 아니지만 워낙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 그것이라도 먹는 것이 참 기다려졌다. 대열을 정비하면서 근처에 잎사귀 하나라도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눈이 휘둥그레졌다. 식사시간에 비닐봉투에 밥과 함께 풀을 넣고 계속 주무르고 이기면 풀떡이 되었다. 그것도 별미라고 맛있게 먹었다. 그 풀과 감자도 방 검사에 걸려서 다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못먹는 풀과 상태나쁜 감자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다.

여름은 감자알이 단추 크기만큼부터 시작해서 탁구공만 하게 커지는 계절이다.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는 시기이기에 비를 맞고 일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억울했지만 땅에 손을 넣어 훑어 얼른 애기감자를 꺼내어 먹는 요령이 있다면 그 재미가 쏠쏠하였다. 이때만큼은 시골 출신의 죄수들이 참 부러웠다. 시골내기들은 곧잘 감자를 집어내는데 도시에서 지내며 농사는 지어본 적도 없는 나는 감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친한 시골 출신의 죄수들은 자기 솜씨를 자랑하며 몰래 캐낸 감자를 하나씩 건내기도 하였다. 먹어보면 동그랗고 예쁘게 생긴 감자알보다 울퉁불퉁한 감자가 더 달고 맛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씻

지도 않고 인분이 섞인 흙 가운데서 캐낸 감자를 대충 입에 털어넣다 보니 한국 와서 건강검진할 때 회충이 많이 발견되었다.

일 중에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될 경우 부식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쪼쪼 끓을 수밖에 없는 감옥 생활 중에 그렇게라도 더 먹어보겠다고 나도 몇 번 자원해서 일을 나가기도 했다. 하루는 쟁기를 두 사람이 이고 지어서 밭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부식을 먹기 위해 자원을 했다. 스무 명에서 일을 했는데 한 명은 어깨에 나무로 된 쟁기를 매고 다른 한 명은 쟁기의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밭을 갈았다. 쇠가 나무에서 종종 빠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죄수들이 알아서 나무와 쟁기날을 맞춰서 다시 끼워넣곤 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부식이라곤 꿀꿀이죽이 고작이었는데 시라지를 죽처럼 끓여서 주는 것이 다였다. 그래도 그것 조금 더 먹겠다고 피곤을 감수하고 매일 그 무거운 쟁기를 매고 다녔다.

교화소에서 수박이라고 부르는 작물호박도 가끔씩 주었던 부식 중의 하나였다. 초여름쯤 생호생호 나올 때 호박의 반의 반을 잘라서 나눠주었다. 나는 공구관리공으로 일을 했어서 한 조각을 추가도 더 얻어먹었다. 솔직히 밖에서라면 생으로 먹을 음식은 아니었지만 워낙 채소가 귀한지라 처음 조각은 사과처럼 와작와작 씹어먹으면서 꿀처럼 달게 먹었다. 그렇지만 두번째 조각부터는 아무래도 생으로 먹기에는 거북하기는 했다.

가을에는 감자농사 뿐만 아니라 강냉이밭(옥수수밭)에도 수확을 도우러 갔다. 그 곳의 죄수들은 강냉이를 몰래 재빨리 먹는 법을 가르쳐준다. 입에 손을 대고 순식간에 갉아먹어야하는데

다람쥐보다 더 빠른 것이 우리였다. 그렇지만 생 옥수수를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되서 토하기도 했다. 또 가을에는 초록색 완두콩을 콩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했는데 일을 잘하면 삶아서 으갠 감자에 완두콩을 박아서 주었다.

겨울에는 고추들이 빨갭게 익었다. 죄수들을 위한 작물이 아니고 간수들이 가져갈 품목이었다. 다 따고 남아있는 별 볼일 없는 고추들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누렇게 되고, 나중에는 허영게도 되는데 죄수들은 대열을 맞추어서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허영고 꺼먼 고추들을 따려고 혈안이 되었다. 어떤 조미료나 향신료도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 나쁜 고추라도 고급 식자재가 되었다.

배가 고픈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거했던 빈대, 이,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였나보다. 이곳의 바퀴벌레는 어찌나 역센지 사람의 살점까지 뜯어먹었다. 뜯긴 곳이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났다. 또한 이가 하도 많아서 옷을 들추면 이가 보였다. 출근 전에 대기 정렬을 하고 있을 때 “언니야, 여기 장난 아니다”하면서 서로의 이를 잡아주었다.

교화소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업은 똥을 가득 실은 구루마를 끌고 얼음장 같은 냇물을 건너는 일이었다. 차가운 강물을 두 번 건너야 우리가 작업하는 감자밭이 나오는데, 그 감자밭까지 인분 가득한 구루마를 옮겨야했다. 겨울에는 똥이 얼어있으므로 각자 커다란 천가방으로 운반했지만 봄에는 똥이 녹으므로 구루마로 한꺼번에 옮긴다.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리고 열 명 남짓이서 1톤 가량 되는 무게의 구루마를 끄는데 돌바닥에 발이 계속

걸리고 구루마가 너무 무겁다보니 발도 다치고 서로 고함 치며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옮겼다. 중간의 냇물도 통과해야 해서 몸이 훌쩍 젖었다. 오래된 죄수들은 저기 언덕 위에 앉아서 신입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낄낄대고 웃으면서 구경만 했다.

구루마를 옮기고 나면 부식이 주어졌다. 줄을 서서 부식을 받으면 동그랗게 앉아서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배고픔 앞에 사회적 가면도 인격도 내려놓았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얼른 부식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기존에 있었던 부대원들이 내 팔을 탁 치면서 “야, 재수 없어. 뒤로 가.” 라며 텃세를 부렸다. 순간 화가 나서 따지려고 했으나 감옥에서 나이보다는 누가 먼저 들어왔냐가 중요했다. 신입들은 기존 죄수들 앞에 서면 안되었고, 고참 죄수들 눈 밖에 나면 생활이 피곤했다. 그래서 억울했지만 맨 뒤에 줄을 서서 부식을 받아먹었다. 비록 낱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막연하고 한심한 풀죽이었으나 그 먹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했다. 한 손갈 한 손갈 입으로 가져갈때마다 죽이 비워지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다.

감옥에서는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다. 허약자들은 그나마 받는 음식도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서 반 손갈 반 손갈씩 깨작깨작 먹었다. 체력도 안 되는데 먹을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썼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똥을 만지고 밭에서 구른 흙투성이 옷을 그대로 입고 먹고 잤다. 그렇지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릴지, 언제 기운을 잃을지 모르는 일이다. 나는 남편이 구해다 준 옷 덕분에 일하는 옷과 먹는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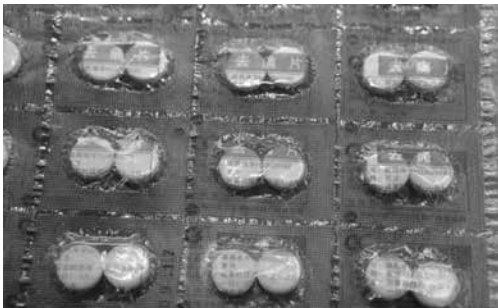
과 자는 옷을 따로 챙겨 입었다. 세벌 모두 절대적 기준으로는 깨끗함과 거리가 멀었지만 그렇게라도 청결을 유지하고자 힘썼다. 가끔씩 대열을 맞추면서 교화소 마당을 걷다보면 쓰레기장 옆에 큰 거울이 깨져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죄수들은 재빨리 자기 몫의 거울을 챙기기도 했다. 손가락보다 작은 사이즈의 거울 조각이지만 자기 얼굴을 부분적으로라도 비추어보며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다. 교화소에서 오랫동안 생존해온 장기수들은 그곳 생활에 적응한 상태에서 그런지 거울 조각들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부렸다. 옷차림도 그나마 깨끗해보였다.

나름의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다가오는 병마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어느 날인가 너무 아팠다. 약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도 없었다. 남편은 내 생일 때 면회를 온 이후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고, 나는 남편이 나를 포기한 줄로만 알았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픈 중에 남편에게마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예전에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나에게 연락한 전적 때문에 단련대로 잡혀가 옥살이를 했다. 단련대는 복역기간이 짧다 보니 적어도 몇 년은 지내야 하는 교화소보다 일을 고되게 시키는 듯했다. 후에 남

편에게 들으니 몇 개월 동안 고문처럼 노동을 시켰고, 그 와중에 죽는 사람도 나왔는데 단련대에서 죽은 사람은 공민권 박탈이 안 된 상태이므로 그 시신을 집에서 가져가도록 했다고 한다. 정말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곤 한다.

열이 나서 공공대다 못해 이제는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을 무렵, 같은 감방의 죄수 한 명이 정통편이라는 중국의 진통제를 주었다.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증에 쓰는 약이지만 약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는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원래 감옥 내에서는 그 약 두 알이 밥 한 덩이와 거래되었지만 그 친구는 나의 모습이 딱했는지 거저 약을 주었다. 아편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약을 먹으니 그나마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자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다. 그러나 고되게 일을 하고 씻는 것도 얼음장 같은 물에 씻다보니 원체 몸이 나아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죄수의 귀뜸으로 감옥 내에 사우나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욕실 옆에 감옥 전체의 불을 때는 곳으로 보이는 방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다. 밑에 깔판은 쇠로 되어있고 마루는 나무로 되어있었다. 씻는 시간이 되면 얼음장 같은 물을 온 몸에 끼얹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재빨리 때를 밀었다. 그리고 다시 밖에 나와 물을 끼얹고 도로 그 방으로 가서 때를 밀고 했다. 언젠가부터는 다른 죄수 몇 명도 함께 동참해서 마치 사우나를 즐기듯 찰나의 여유와 행복을 누렸다.

나는 자기관리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몸이 약했다. 감옥에서 전염병이 돈다 하면 무조건 내가 먼저 걸리고 보았다. 감옥이라는 특



〈‘정통편’ 또는 ‘거통편’으로 불리는 중국 진통제〉

성상 공간이 좁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염병이 돈다 싶으면 죄수들 거의 모두가 얼마 안 있어 환자가 되었다. 어느 날 한번은 옴이 감옥에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참을만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겨드랑이나 사타구니같이 피부가 얇은 곳이 미칠듯이 간지러웠는데 소금물을 발라도 해결이 안되었다. 죄수들 사이에서 옴을 치료하려면 돼지기름 굳은 것에 유황가루를 이겨서 간지러운 부위에 바르고 아궁이불에 쪼면 유황이 뜨거워지면서 균을 태워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감옥 안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하겠는가?

그러던 어느날 산에서 노동을 하던 중에 변을 보는데 친했던 옥자라는 친구가 내 몸에 옴이 빨갛게 꽃이 폼다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고 호통을 쳤다. 그리고 자기 밥을 희생해서 나를 위해 중국약을 구해다 주었다. 너무 고마웠다. 그 약을 바르고 자니까 오랜만에 편히 잘 수 있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만 같은 고된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면회를 오지 않자 나는 이제 오히려 더 악을 쓰고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특별 지령이 내려졌고 나는 4년에서 2년으로 감형이 되었다. 더욱이 그동안의 나의 성실한 행실을 높이 샀는지 내가 분조장으로 뽑혔고, 얼마 안 있어 조장과 감방장이 특별 지령에 의해 출소를 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감방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정말 행운 중의 행운이었다. 나는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남 몰래 감사드렸다. 그 당시 나는 이미 1년의 형을 지냈기 때문에 1년의 형기만 더 남았다.

감방장이 되면서는 그나마 지옥같았던 감옥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만 같았다. 죄수들이 면회갔다 돌아올 때 몸에 면회 음식물들을 숨겨서 나에게 뇌물처럼 주기도 했고 세수비누나 신발, 평평이가루와 같은 귀한 물건들과 음식물도 감방장인 나에게 바쳤다. 이런 사소한 뇌물들 때문에 간수들에게 비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훈도 났다.

내가 있던 감옥은 완전히 나라에서 포기한 수용소가 아닌 교화소다. 간수들은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애를 썼다. 일이 끝나고 학습 시간에는 누군가가 앞에서 신문이나 발간지를 읽었는데 기회가 되면 나는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발간자료들을 일부러 읽었다. 읽었던 글 중에는 ‘새출발’이라는 발간지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던 죄수들이 출소하여 교화된 공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적으로 잘된 사례만 정리한 책자였다. 죄수들을 교양하려는 목적의 이런 잡지들이 매번 들어왔고, 다른 자료 책들도 들어왔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무릎만큼 차올라 제대로 걷기도 힘든 날이었다. 교화소 근처 수림에는 아름드리나무가 많았고 죄수들은 지시에 따라 얼음판과 눈길을 헤쳐 수림까지 걸어갔다. 아름드리나무들은 어찌나 컸던지 몸통을 두 사람이 안으면 손 끝이 겨우 닿을 정도였다. 남자죄수들이 그 큰 나무를 톱질하여 자르면 여자 죄수들은 다 자른 것을 산 밑까지 운반하는 것이 일이었다. 건조하고 수분기가 없는 겨울에 나무를 톱질하여 불을 때는 데에 쓰는 모양이었다. 여자 죄수들은 돌 썩 짚을 지어 내리막길에서는 그 껍질을 도끼로 벗겨서 매끄럽게 내려가도록 두고,

오르막길은 끈으로 이어서 끌고 올라갔다. 무거운 나무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내리막길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나무가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므로 아주 전속력으로 뛰어가지 않으면 다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평소처럼 내리막길에서 나무를 굴러놓고 그 앞을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때 신었던 겨울 신이 하필이면 밑창이 다 헐어서 매끄러워져 있었고, 얼마 못 가 엉덩방아를 찌며 넘어지고 말았다. 그 때 내 뒤에서 굴러오던 통나무가 중간에 붕 뜨더니 주저앉아있던 내 위로 다시 쿵 하고 떨어졌고, 나는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다. 같이 한 팀이었던 어린 여자 죄수가 깜짝 놀라 내 허리를 정신없이 주물렀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냈는지 순간 깜빡 통증에 의식을 잃기도 했다. 추운 설산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꿈쩍없이 죽겠다 싶어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걸어내려왔다. 그 이후 보름은 꿈쩍없이 누워있었다. 떨어지는 아름드리나무를 온 몸으로 받은 격이니 몸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감방에는 겨울철이라 그런지 나 말고도 몇 명이 다쳐서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다른 죄수가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루디아(가명)라는 죄수였다. 이 죄수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그 안에서 부르르부르르 떠는 것이 보였다. 나는 갑자기 큰 충격과 신비로운 감정에 빠졌다. 중국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나는 이 사람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방언으로 기도중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험악한 감방 한가운데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와, 이런 감옥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네.’하고 깜짝 놀랐다. 그것이 나와 루디아 선생님과 첫 대면이었다. <계속>



+ 북한, 동창리서 '중대시험'… 다단 로켓 엔진 시험으로 추정



〈2016년 9월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진 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연소시험 장면〉

북한이 지난 12월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 시험의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 시험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두차례 엔진 연소시험은 '신형 다단(多段) 로켓'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시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식의 강력 경고를 내놨다. 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대미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 재선가도에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대미 압박행보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북미 간 긴장이 계속해서 치솟는 양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대북외교 차적으로 내세워온 만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가 미국 대선에 여파를 미칠 정도로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는 발언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 러시아와 중국, 유엔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6자 회담 재개도 제안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12월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최근 북한의 ICBM용 신형 엔진 실험으로 추정되는 중대 시험 발표 관련한 미국의 우려와 경기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미국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대북제재 완화 등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한 미국과 유엔의 조치를 압박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은 대

북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 조항'을 적용하자고 요구했고, 러시아는 '제재완화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와 6자회담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다.

전문가들은 러·중 양국의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 제출을 자신들이 주장해온 한반도 문제 해법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에 담긴 6자회담 재개 제안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국면에서 러·중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동시에 북한에는 러·중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기독교통일포럼, ‘2019년 통일선교 10대 뉴스’ 선정 발표

매년 연말에 그 해 한국교회 통일선교 활동의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기독교통일포럼의 ‘2019년 한국교회 통일선교 10대 뉴스’가 12월 23일(월)에 발표되었다. 기독교 통일포럼에서는 통일선교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사무총장인 정종기 목사(ACTS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지 목사(NKC연구원장)와 김구남 박사(한국외국어대), 이다니엘 연구팀장(한국 오픈도어선교회)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조직하고, ‘2019 한국교회 통일선교 일지’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선정된 초안을 14일(토)에 열린 12월 모임에 제출하여 전체 회원들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기독교통일포럼 상임대표인 이원재 목사(남산감리교회 담임)은 ‘2019 통일선교 10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기독교통일포럼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일이 그 해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의 활동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독교통일포럼이 통일선교 관련 행사들과 사건들을 일별(日別)로 기록해서 작성한 ‘올해의 한국교회 통일선교 일지’는 내년 연초에 발간되는 「2020 통일선교 내비게이션」(기독교통일포럼 연간지)에 수록될 예정이다

기독교통일포럼이 선정한 ‘2019 통일선교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① 각 교회의 북한선교 부서와 연합단체,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통일선교 활동이 더욱 활



〈기독교 통일포럼은 매월 정기모임을 가지고 통일선교 관련 중요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19년 9월 기독교통일포럼 정기모임 모습〉

발해지다.

- ② 국제사회와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통일선교 활동이 활발해지다.
- ③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통일선교 활동이 계속 많아지다.
- ④ 통일선교 활동이 전국 각 지방으로 날로 확산되고 있다.
- ⑤ 북한에 억류 중인 선교사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⑥ 유엔의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담보로 대북지원 NGO들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⑦ 중국을 통한 북한선교 사역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다.
- ⑧ 여러 일들로 탈북민 사회에 동요가 이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 ⑨ 북한, 국제사회로 부터 변함없이 종교박해국으로 지목되다.
- ⑩ 6.25전쟁 발발 70년 행사들이 준비되기 시작하다.

+ 연초 맞아 각종 통일과 북한선교 관련 모임과 행사 개최

2020년 새해를 맞아 여러 단체에서 통일과 북한선교를 주제로 다양한 기도회와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부터 통일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열린 통일비전캠프가 올해는 통일코리아선교대회로 열린다. 장신대에서 1월 29일(수) - 2월 1일(토) 일정으로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라는 주제로 부흥한국, 평화한국, 예수전도단 등 7개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대원

목사(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 한미미 세계 YWCA 부대표, 김운용 장신대 교수, 배기찬 전 청와대 비서관,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를 비롯해 탈북민, 선교사 간증과 판문점-DMZ 탐방 등으로 꾸며진다.

에스더 기도운동에서는 1월 6일(월)부터 10일(금) 흰돌산 수양관에서 북한구원금식성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3차를 맞는 이번 금식성회는 3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북한 선교를 중심으

로 이슬람권과 이스라엘 선교, 부흥을 위한 소그룹 기도운동, 거룩과 능력 등을 주제로 김요한 선교사, 김재동 목사, 김지연 약사, 박영우 목사 등이 강사로 메시지를 나눈다.

탈북민을 중심으로 남북 성도들의 영적갱신과 선교 운동을 전개하는 다윗과 물맷돌 선교회는 2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영성집회를 가진다. 통일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전 100주년 기념교회 북한부서 담당이자 현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북목연)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회 대표 김주한 목사를 주 강사로 북한 선교의 비전에서부터 개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남북을 주님안에서 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한 메시지와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탈북민 목회자에게서 듣는
남북통합 영성집회**

남북을 주님 안에서 품은 한 탈북민 목회자의 증거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20. 2. 10(월) 14:00 접수~12(수) 13:00 (2박 3일)
◆장소 : 세이레 기도원 (부천 유한대학교 내, 역곡역에서 1km, 도보 10분 정도)
◆대상 : 통일선교에 관심있는 한국교회 성도, 탈북민 (선착순 100명)
◆회비 : 5만원(신한은행 100-034-014989 다윗의물맷돌선교회)
◆문의 : 정연숙 간사 010-6745-6657

강사소개
김주한 목사
• 전 인천제2교회 북한부서 담당
• 전 100주년 기념교회 북한부서 담당
• 현 다윗의 물맷돌선교회 대표
• 현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회장

강의주제
▶통합1. 북한선교의 비전
▶통합2. 십자가란 무엇인가?
▶통합3.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통합4. 세리를 향한 사랑
▶통합5. 살기 위해하는 영적 싸움
▶통합6. 내가 부서지는 이내
▶통합7. 신부여! 일어나라!

분단 70년의 북한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수용의 능력이 없다면, 수용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통일의 선물을 없습니다.

〈다윗과 물맷돌 선교회 영성집회 포스터〉

북한 기도 제목

1.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주님의 뜻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해에도 세상이 아닌 주님만 기대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꾸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남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남한의 교회가 북한선교와 통일을 향한 비전을 더 깊이 품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더 넓은 시야와 장기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됨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통일을 이뤄가며 북녘의 형제 자매들을 깊이 생각하고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과 오만을 벗어내고 겸손과 지혜로 옷 입는 올 한 해 되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인 그곳에서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고난 중에 피워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며 통일된 한국교회에 기여하고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북한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온 선교사 추방 사태 등 현장의 어려움이 2020년에는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로운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의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의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5.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19년의 마지막은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무력 사용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국제 정세와 외교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평화의 주인입니다. 한반도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인권 탄압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이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 또는 완화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무고한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7. 북한 성도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한 물자와 열악한 시설 가운데 다가오는 살을 앓는 듯한 추위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들이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본 교회에서는 겨울을 맞아 특별히 각종 방한용품 및 생필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필요한 물품이 어떤 사고나 유출 없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의 모든 과정과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달되는 사랑의 온정이 담긴 물품들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신앙을 지켜가며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
8.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앙활동에 극심한 제약이 있는 그 땅에 라디오는 한줄기 빛과 같은 주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 잘 제작되고 송출되도록, 그리고 항상 깨끗한 음질로 성도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1월 1일



2020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20년 4월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2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6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